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을 빛내인다

공화국의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로 탄원하는 열기가 나날이 높아 가고있다.

지난 5월중순 어느날 밤이었다. 자정이 훨씬 넘었지만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 2동에 살고있는 량심화녀성은 잠들지 못하고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것은 저녁식사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지 2년도 안된 외동딸 향별이가 한 말때문이었다.

《어머니, 난 오늘 탄원했어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은파군 대청리로 말이예요.》

딸의 결심은 장하고 미더웠지만 한편으로는 곱게 키운 딸자식이 선뜻 집을 떠나 농장으로 탄원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고급중학교 학생인 아들 명철이가 누나의 손을 잡고 말하는것이였다.

《누나도 탄원자대오의 한 사람이란 말이지. 야, 멋있구나.》

그러면서 아들에는 탄원자형님, 누나들은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애국자이러며 자기도 앞으로 누나를 따라 대청리로 탄원하여 농사를 잘 짓는데 한몫 단단히 하겠다고 하였다.

량심화녀성은 자신을 다잡으며 딸에게 말하였다.

《인생의 앞길에 대한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지만 주

흥적인 감정만으로는 실패하기가 쉽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밤이 깊어 모두가 잠에 들었지만 그는 자리에 누울수 없었다.

놀뭍는 조국의 숭결과 함께 하기 위해, 량심의 물음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워보며 무거운 짐을 끼어겨 걸머지려는 딸의 결심이 장하기 그지없었다.

이날따라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란 딸애가 더더욱 사랑스러웠다.

그로부터 얼마후 모두의 바래움속에 대청리로 떠나는 딸애를 손저어바래주는 그의 눈가에는 뜨거웠던 고여올랐다.

그로부터 얼마후 모두의 바래움속에 대청리로 떠나는 딸애를 손저어바래주는 그의 눈가에는 뜨거웠던 고여올랐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자식을 먼곳으로 떠나보내는 리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어디에 가도 사회주의에 국경년의 고귀한 청춘을 빛내여가길 바라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당부의 눈물이였으며 청년들모두를 억세게 키워주고 값있는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분출이었다.

어찌 그 하나만이라.

자본주의나라에서 청년들이 저 하나만의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도로, 도시로 모여들고있을 때 이 땅에서 수도 평양을 떠나 제일 어렵고 힘든 탄원으로, 협동별로 달려나가고 정

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신문과 방송, TV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청년들에 대한 소식의 매일과 같이 전해지고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열혈청춘들이 탄원과 협동별, 대건설장과 섬마을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출향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평양시에서 수십여명의 청년들과 황해북도의 많은 청년들이 인민경제 주요부문에 탄원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수십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로 용약 달려나갔다.

경력과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나가 청춘의 꿈과 리상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려는 청년들의 지향은 하나와 같다.

명도자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많아 공화국은 젊음으로 비약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별천안 절망의 나라에서 해매이는 청년들

공화국에서 청년들이 애국열, 혁명열로 심장을 불태우며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있을 때 황금만능의 가치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극도의 절망과 비관, 염세와 타락속에서 헤매이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청년들은 빛으로 사는 세대, 역대 최대규모의 빚을 지고있는 《빚세대》로 전락되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청년들이 진 빚의 총액은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된것만도 4300억US\$이상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청년세대의 빛이 급증한 원인은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전락되고 정상적인 수입으로 살아갈수 없어 《벼락부자》를 꿈꾸면서 부등산과 주식투기에 뛰어들고있는데 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부모와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이 저 하나만의 안락을 위해 사는 독신자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20, 30대청년들이 《벼락거지》(집값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 《이성망》(이번 생은 망했다는 의미) 등으로 불리워지고있다고 한다.

련애와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을 포기한 《7로세대》, 《삼자세》를 포기한 《삼포세대》 등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몇푼의 돈을 위해 부모, 조부모들을 살해하는 범죄행위와 같은 폐륜적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는가 하면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2021 자살예방

백서》라는 피이한 문건이 발간되었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매일 3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으며 특히 인생의 초엽인 20대가 그 다수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청년은 빛과 세균, 가난은 나를 희망애로가 아니라 절망애로 몰아넣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는가 하면 한 청년실업자는 《이런 사회를 만든 사람들에게 항거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제손으로 죽이고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삶을 비관하고 지옥같은 사회를 저주하며 죽음을 택하는 청년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청년들의 자살을 막아보려고 《자살터》들마다에 귀맛좋은 이리저리한 글들을 써붙여놓는다고 하지만 절망과 한탄속에 생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막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의 한 잡지는 《이 사회에 청년은 없다. 진취성과 패기라는 젊음이 가지는 특성을 잃고 결핍어가고있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환벽한 축소판을 본다.》라고 개탄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하여 청춘을 값있게 빛내어가는 공화국청년들의 장한 모습과 부패타락과 범죄의 길, 절망의 나라로 빠져들고있는 남조선청년들의 불행한 모습은 민족의 창창한 앞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산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족

《환자들이나 친혈육날았습니나》

지난 5월 돌발적인 전염병전파사태로 하여 취해진 단위별 격리기간 공화국의 방역일군, 보건일군들과 함께 2400여명의 년로 보장자들이 자원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참가하였다. 년로한 몸이지만 스스로 전투원이 되어 환자치료를 도맡아나선 사람들을 대성구역 룡북동 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명희(65살)녀성도 있다.

보건부문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김명희녀성은 유혈자들이 늘어나자 의료일군들을 도와 인민반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맡아할 결심을 내리었다. 그런 김명희녀성에게 아들이 물었다. 종합진료소의 호당당의사들도 있고 방역일군들도 있는데 꼭 어머니가 환자치료를 해야 하는가고...

김명희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생각해봐라.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정에서 쓰셔야 할 상비약품까지 없고있는 인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돌려주시고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약국들에까지 찾아가지 않으셨니. 우리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두고 총비서동지께서 그토록 마음쓰고계시는데 내가 년로보장을 받았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겠나. 그

것은 공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김명희녀성의 눈앞으로 꿈꿨던 처녀시절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일군으로 일해온 나날들과 여러 차례 국가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 나날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질세위원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겨놓고 자기의 피와 피부도 서슴없이 바치며 환자치료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그였다.

김명희녀성에게 있어서 앓고있는 인민반사람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모신 화목한 대가족의 한식물, 친혈육들이었다.

하기에 그는 자기 집에 보관해두었던 귀한 약들을 아낌없이 내가 인민반사람들을 온갖 성의를 다해 치료해 주었다. 낮에는 낮대로 환자치료로 분망하게 보내고 깊은 밤이나 새벽에도 때없이 환자들을 찾아 아바트의 높고낮은 층계를 수없이 오르내리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심하게 앓는 환자를 돌보며 지새운 밤은 또 얼마였던가...

이 나날 그의 모습은 인민반사람들의 가슴속에 다식하고 헌신적이며 인정많은 어머니로 깊이 새겨졌다.

이렇게 김명희녀성은 단위별 격리기간 인민반의 근 50세대를 대상으로 치료사업을 진행하여 70여명의 주민들을 완쾌시켰다.

《우리 인민반의 마지막말 열자까지 다 찾아 치료해주고 김명희어머니는 그만 쉬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자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만난 이곳 인민반장은 김명희어머니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인민반사람들이 저저마다 그의 집문전에 고기와 닭알, 물고기, 과일과 남새 등을 가져다 놓았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지어 철부지아이들이 《할머니, 우리때문에 쓰러졌군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이젠 주사맞을 때 울지 않을래요.》라고 쓴 글쪽지들도 김명희녀성의 집문전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할 열의를 안고 환자치료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김명희녀성과 자기들을 위해 기술인 뜨거운 마음을 잊지 못해하며 앓고있는 그를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인민반사람들...

이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수록 더 뜨겁게, 더욱 따뜻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미덕과 미용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공화국,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사회주의 대가족의 참모습의 일면이다.

본사기자 김범식

수많은 음악신동들을 키워낸다

지난 7월 14일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경상유치원을 찾으신어 훌륭한 음악신동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날이다.

그때로부터 나라의 종합적인 조기음악교육기지로 이름 높은 경상유치원에서는 수많은 음악가후비들이 자라났다.

2016년 5월에 진행된 제24차 소췌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 참가한 마신아는 뛰어난 피아노연주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등상을 쟁취하였으며 제9차 모스크바축전과 제9차 라흐마니노브명칭 국제피아노콩쿨, 제10차 국제청소년음악가콩쿨 피아노부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곳 유치원의 유별미어린이는 제56차 슈만국제청소년 피아노콩쿨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제10차 싸포노브명칭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에서는 최우수연주자에게만 주

수어 받았다.

제20차 국제청소년쇼팽피아노경연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받은 이곳 유치원의 최장흥, 리우정어린들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나이어린 콩쿨입선자들로 되었다.

이들의 피아노연주솜씨에 반한 경연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쇼팽을 낳은 불스개의 연주자들보다 쇼팽의 곡을 더 잘 연주할수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찌 그뿐이라.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벼들을 맞이한다》에 초청된 경상유치원의 어은금 3중주단이 대절찬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경상유치원에서는 세계음악계를 놀래운 10명의 국제콩쿨상자들이 배출

되었다.

이런 훌륭한 성과들은 공화국의 훌륭한 교육제도와 함께 이곳 유치원의 조기음악교육체계, 교양원들의 숨은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상유치원의 교양원들은 뛰어난 예술적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신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들은 시간의 타악소들에서 음악적소질이 남다른 어린이들을 품어내어 어린이들의 희망에 따라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기타 등등의 악기를 선택하여 배워주고

있다.

해당 악기, 룡동, 청음, 시창을 배워주는 교양원들이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계수준의 연주자로 자라나도록 심도있는 교육을 주고있다.

유치원교양원들은 음악박교과서를 현실발전의 요구와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갱신하고 어린이를동무용교재를 완성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유치원원전자교과서 (친한 동무)》 등을 개발하였다.

음악신동들을 키워내기 위해

